

다시 꽃 피는 시간

조현숙

습관적으로 4층을 올라다본다. 역시나 베란다에는 미어캣이 서 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추레해진 모습으로. 폐기물 스티커를 붙인 채 경비실 뒤편에 쭈그러져 있는 낡은 소파처럼.

엄마는 이사를 앞두고 버려야 할 것과 가져갈 것을 공들여 구분하고 있다. 아빠한테도 스티커를 붙이면 어떡하나, 걱정된다. 아빠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냥 나무늘보처럼 잠만 자면 좋겠다. 그러나 아빠는 사막의 파수꾼처럼 베란다로 쏟아지는 햇빛을 배에, 등에 받고 서서 아파트 안을 감시하고 있다.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어느 순간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댈 것이다. 누가 단지 안을 뛰거나 배달 오토바이가 속력을 내거나 불법 주차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괴성을 내지를 것이다. 나는 베란다의 미어캣이 내 아빠라는 걸 친구들에게 절대로,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다.

우리 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줌마 둘이 수다를 떨고 있다.

“새벽 두 시에 소방차 들이닥치고 난리 난 거 알지? 그게 다 여기 4층에 사는 그 이상한 남자 때문이래.”

“알지, 자다가 얼마나 놀랐는데. 사이렌 소리에 깨서 내다보니까 소방차들이 줄줄이 들어오는 거야. 열 대도 더 왔을걸? 근데 그 남자 때문이란 건 또 무슨 소리야?”

나는 그만 얼어붙는 줄 알았다. 바로 아빠 이야기였다.

“그 새벽에 소방차는 계속 들어오는데 연기 나는 데는 없고 대피 방송도 안 하길래 이상해서 내려갔지. 경비 아저씨가 그러는데 우리 아파트에 불이 나서 사방으로 불꽃이 날린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한 거래. 소방대원들이 아파트 구석구석 다 점검했는데 다행히 화재는 아니고, 아파트 꼭대기에 달린 항공 장애등 하나가 고장이 나서 번쩍거렸는데 그걸 보고 착각한 것 같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신고를 한 사람이 4층 남자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아줌마들이 탔다. 내가 타지 않자 한 아줌마가 버튼을 누른 채 날 기다렸다. 할 수 없이 엘리베이터를 탄 나는 4층 대신 14층을 누르고 말았다. 아줌마들의 수다는 계속되었다.

“그 남잔 잠도 안 자고 그건 왜 봤대? 정말 정신 나간 사람 아냐?”

“그렇겠지. 아니면 어떻게 그런 걸 다 착각하냐? 그나마 우리동이 아니라서 다행이지, 이 라인에 사는 사람들은 좀 그렇겠다. 그 남자랑 마주치기라도 해 봐. 어떡할 거야.”

엘리베이터는 4층 우리 집을 지나 12층에서 멈췄다. 아줌마들은 나 같은 어린애는 옆에 있어도 상관없는지, 내릴 때까지 계속 아빠 흉을 봤다. 톱툰이 웃기까지 했다.

‘안전 불감증이 문제지, 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죠?’

머릿속에서는 그 말이 막 맴도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누구를 향한 건지는 알 수 없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뒷담화하는 아줌마들한테? 사고만 치는 아빠한테? 아니다. 나 자신에게 제일 화가 났는지도 모른다.

오늘도 아빠는 아침부터 베란다에 서 있다. 언제부턴가 아빠 얼굴보다 등이 더 익숙하다. 잠은 자는 걸까? 설마 잠도 베란다에서 자는 건 아니겠지? 어제 새벽에 그 난리를 쳤으면 좀 자제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는 거 아닐까? 우리 가족은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저만의 공간에서 등만 보며 살아야 할까? 오늘은 아빠가 참 얄밉다.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이야기는 엄마한테 하지 않았다. 엄마라고 귀가 없겠나.

“밥 안 먹을래. 그냥 갈게요.”

“식탁에 다 차려 놨어. 빨리 먹고 가.”

“나 바빠.”

아차! 엄마와 내 눈이 동시에 마주쳤다. 아니나 다를까, 충실한 미어캣처럼 눈만 굴리고 있던 아빠가 소리소리 질러 대며 거실로 들어왔다.

“또 빨리빨리, 바빠. 그게 사람 죽이는 거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어? 그렇게 바쁘면 미리 준비하지. 빨리 먹다 체하면, 설치다 사고 나면 그때 어떡할 건데.”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빨리’란 말이고 제일 싫어하는 일이 ‘사진 찍는’ 거다. 서두르거나 속력을 내거나 길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게 누가 됐던 아빠는 불같이 화를 내고 소릴 지른다.

“아, 난 그딴 거 몰라. 정말 아빠 싫어. 우리 동이고 다른 동이고 이

젠 아파트 전체가 다 아빠 흥보는 거 모르지? 창피해 죽겠어.”

문을 탕, 닫고 나와 버렸다. 대체 언제까지 어린 내가 어른인 아빠를 참아 줘야 한다는 말인가. 정말 이상한 아빠다. 엄마를 볼 때마다 외할머니가 한숨을 푹푹 쉬는 게 이해가 된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다. 소방대원인 아빠가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재작년, 그 화재 사건이 있던 뒤부터이다. 자세한 건 모른다. 외할머니의 꾸념 때문에 알게 된 게 다다. 나는 어른들 눈치만 봤고 어른들은 어린 내게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 사실 묻지도 않았다. 종일 학교다, 학원이다, 친구들과 보내니까 뭐가 그리 궁금하지도 않았다. 아빠가 내 비밀이 된 거 말고는 별로 불편한 것도 없다. 근데 오늘은 진짜 아니다. 이런 이상한 아빠, 가족들 고생만 시키고 창피하게 만드는 아빠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미나가 쪼르르 달려왔다.

“우리, 푸른아파트로 이사 가.”

우리 아파트로?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이제 같이 다니자. 그럴 거지? 넌 몇 동에 살아? 우린 206동.”

“응, 그래, 뭐.”

미나는 좀 들떴는지 우물쭈물 얼버무리는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보다는 눈을 반짝이면서 소곤거렸다.

“근데 푸른아파트에 이상한 남자가 산다며?”

“뭐?”

“울 엄마 친구가 거기 살거든. 그 동으로는 이사 오지 말라고 했

대.”

가슴이 쿵닥거렸다. 미나가 이사 오면 그 이상한 남자가 우리 아빠인 거, 알게 되겠지? 그러면 애들이 다 알게 되는 건 시간문제고. 엄마가 이사 가야 한다고 했을 땐 가기 싫다고 짜증을 냈는데 이젠 하루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

“참, 너는 그 아저씨 알겠네?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그딴 걸.”

보족한 내 목소리에 미나가 입을 삐죽거렸다.

시작종이 치고 국어책을 폈지만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았다. 수업 시간 내내 이사 간다, 이사 온다, 그 생각만 났다. 심청전을 설명하는 선생님 목소리가 꿈결처럼 웅웅거렸다. 내 복잡한 머리를 비집고 공양미, 인당수, 젓동냥 그런 낱말들이 두서없이 들어왔다. 문득 선생님 목소리가 문장이 되어 또렷하게 들려왔다.

“자기가 효녀, 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말하세요.”

미나가 번쩍 손을 들었다.

“저요, 선생님. 전 아빠 수염이 너무 따갑지만, 꼭 참고 보보해 드리기 때문에 효녀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와, 웃었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아이들이 맞장구를 치자 선생님도 빙그레 웃었다. 여기저기서 이래서 효녀라고, 효자라고 장난스럽게 말하는 아이들의 높고 맑은 목소리가 교실을 찡찡 울렸다.

“세상에서 울 엄마가 젤로 예쁘다고 하면 그냥 끝나요. 좋아서 막

용돈도 주고.”

“저번 일요일에 아빠 손잡고 등산 갈 때 아빠가 그랬어요. 올 아들 효자라고요.”

“안마하고 꼭 안아 드리면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하세요. 그럴 때 마다 제가 효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교실에 있지만 다른 세상의 아이들 같다. 나도 친구들이 말하는 효녀가 될 수 있는데, 되고 싶은데, 아니, 나도 저런 때가 있지. 있었을까? 꿈속 같다. 선생님이 말했다.

“다음 시간에는 심청이의 효심이 사람들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했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인당수에 몸을 던진 것과 관련해서 생명 존중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 종일 멍하니 있다가 학교 끝나자마자 엄마한테 전화부터 했다.

“엄마, 우리 언제 이사 가?”

“자꾸 너 왜 그래. 이사 가야 한다고 했잖아.”

“안 간다는 게 아니고, 빨리 가고 싶어서.”

“그건 또 뭐 소리야.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학원이나 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베란다에서 웅크린 채 뭔가를 하고 있던 아빠가 날 쳐다봤다. 무슨 말을 할 듯 말 듯 하더니 아빠는 고개를 돌려 버렸다. 나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아침 일까지 겹쳐 서먹한 채로 그냥 내 방에 틀어박혀 버렸다. 퇴근해서 돌아온 엄마도 아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언제나처럼 말없이 저녁을 먹었다.

외할머니가 오셨다. 뭇 때문에 또 화가 났는지 잔뜩 인상을 쓰고

아빠를 쳐다봤고 눈치 없는 아빠는 고개만 꾸벅하고는 횡하니 베란다로 가 버렸다. 아니나 다를까, 외할머니가 엄마를 붙잡고 푸념을 늘어놓았다.

“이 서방은 어째 갈수록 더 하나? 먼저 인사하는 법도 없고. 그래도 남편이고 아빰데, 집안 꼴이 지경 되도록 나 몰라라만 하고.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집까지 내놨어? 이 집 마련하려고 너, 얼마나 고생했냐. 근데 겨우 이 년 살고 집을 내놔? 이 서방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차라리 없는 사람이면 맘이라도 편하지.”

차라리 없는 사람? 그 말이 내 목덜미를 낚아챘다. 그리고 또렷하게 떠올랐다.

‘없는 게 낫겠다.’

내가 아침에 했던 생각이, 내 생각이 그대로 외할머니 입에서 말이 되어 나오니 온몸이 오그라붙는 것 같았다. 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지? 울컥 눈물이 나왔다. 나도 모르게 대들 듯 외할머니께 소리쳤다.

“전 그날 화재 현장에서 아빠가 무사히 돌아오셔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건 외할머니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외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내 손을 잡았다.

“아이고. 그럼, 그럼. 네 말이 맞다. 백번 맞는 말이야. 이 할미가 주책이지. 아가, 답답해서 불쑥 나온 말이야. 내가 잘못했다.”

엉엉 울었다. 엄마도 울고 외할머니도 울었다. 지금까지 서로 눈치

만 보느라 마음 놓고 한번 울지도 못해 한 맺힌 사람들처럼, 우린 다 같이 끌어안고 통곡을 했다. 한바탕 울고 나니까 오히려 개운해진 느낌이었다. 그래서 물었다.

“엄마, 재작년 상가 화재 때, 아빠랑 같이 화재 진압 하다가 화상을 심하게 입었다는 그 아저씨, 어떻게 되셨어요? 설마 돌아가신 건 아니지?”

“치료 잘 받고 많이 회복하셨대. 아직 복직은 못 하셨지만.”

“근데 정말 아빠를 이해할 수 없어요. 같이 화재를 진압하던 동료 옆에서 쓰러지는 걸 보면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겠지. 그렇다고 똑같이 출근도 안 하고 자꾸 이상한 행동만 하는 게 엄만 이해돼요? 우리 아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엄마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래, 맞아. 언제나 패기 넘치는 소방관이었지.”

“근데 대체 왜 저래요? 왜 맨날 베란다에서 사람들 감시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날 화재 현장에 갔을 때 그곳은 아수라장이었대. 불법 주차 차량이 너무 많아서 가뜩이나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데 일부 사람들이 길을 막고 서서 사진에 동영상까지 찍어 댄 모양이야. 거기다가 스톱이 터지는 폭발음도 들리고 화염과 연기가 급속하게 번지니까 아빠는 마음이 너무 급했대. 그래서 안전 제일 원칙도, 평소 훈련 방식도 잊은 채, 마음만 앞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고 그 상황을 파악한 아저씨가 아빠와 화재 현장을 유도하다가 중화상을 입고 쓰러지신 거야.”

그래서 아빠는 빨리라는 말도, 사진을 찍는 것도 그렇게 참지 못했구나. 비로소 아빠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다.

“그렇다고 그분이 꼭 아빠 때문에 다치신 거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 아저씨는 대형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도 30층을 오르내리면서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신 분이셔. 그런 베테랑이 사고를 당했으니 아빠의 성급함이 오히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작전 전개를 방해하고 화재 현장을 더 위험에 빠뜨린 거라고 자책하는 거지.”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만 아빠가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다. 얼마나 마음이 어지러우면 항공 장애등 돌아가는 것을 불꽃으로 봤을까.”

밖으로 나오니 베란다의 키 큰 육각 나무 뒤에 아빠가 서 있다. 아빠의 등이 구부정하게 늘어져 들썩거리고 있다. 아빠는 미어캣이 아니다. 저렇게 숨어서 울고 있는 걸 보면. 엄마 말처럼 아빠는 그냥 생각이 너무 많아서 괴로운 사람이다. 아니, 아빠가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다. 말해 주고 싶다. 아빠가 우리 곁에 있어서 정말 좋다고. 어떤 문제를 일으켰든 지금 살아 있으니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럼 된 거라고.

“아빠.”

나는 용기를 내서 아빠를 불렀다. 아빠가 붉은 눈으로 날 돌아봤다. 하지만 생각과 다르게 나는 또 엉뚱한 소릴 뱉고 말았다.

“아빠도 심청전 읽었지요?”

아빠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는 효녀일까요, 아닐까요? 국어 시간에 독서 토론 할 주제라서.”

아빠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팔을 뻗쳐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었구나. 아빠가 바보같이 그걸 잊고 있었네.”

“승아야.”

날 부르는 엄마 목소리가 전에 없이 높고 환하다. 웬일로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베란다에 서 있다. 엄마가 내게 손짓하며 웃었다.

“이것 봐. 관음죽꽃이야.”

뺏뺏한 관음죽 잎사귀 사이로 비죽 솟은 꽃대에 분홍빛 쌀알 같은 꽃들이 조롱조롱 매달려 있다.

“어? 관음죽도 꽃이 피네? 이거 나 태어나던 해 샀다며. 꽃이 핀 건 처음이잖아. 엄마, 이거 좋은 징조 맞지?”

내 호들갑에 엄마가 중얼거렸다.

“그런가? 그러고 보니 선인장들도 다 꽃을 피웠네. 저 제라늄은 시들시들해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동안 베란다에 뭘 일이 있었던 거야.”

나도 아빠의 전용 자리였던 베란다를 둘러보았다. 한동안 쳐다보지도 않았던 베란다의 꽃나무들과 선인장들이 노란색, 보라색, 분홍색의 화려한 꽃을 앞다퉈 피우고 있었다. 엄마와 나는 동시에 아빠에게 고개를 돌렸다. 아빠는 우리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뚱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웬일인지 오늘 아빠는 웃도, 머리도 단정하다. 엄

마가 아빠에게 말했다.

“승아 아빠, 우리가 동행하면 안 될까요? 내가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실게. 당신 운전 안 한 지도 오래됐는데.”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도 준비할게요.”

엄마가 얼른 내 손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갔다.

“우리, 어디 가요?”

“아빠가 아저씨 뵈러 간대. 어제 그 얘기 듣고 한숨도 못 잤어. 네 말대로 좋은 징조 같아. 아빠 마음에 분명 변화가 생긴 거야.”

“정말? 나도 같이 가는 거 맞지?”

“그럼, 그럼.”

엄마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쓸 만한 화분은 꽃집에 주고 나머지는 버리려고 베란다에 갔던 건데, 그렇게 다들 잘 자라고 있었네. 그 꽃들이 마치, 날 좀 봐 달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 아빠는 베란다에서 화만 사르고 있었던 게 아닌가 봐. 아빠도 다시 피어나기 위해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나 봐. 죽어 가는 꽃들을 살리면서. 얼마나 안간힘으로 버텼을까.”

아빠 때문에 나와 엄마만 힘든 줄 알았다. 아빠도 살려고, 자신의 꽃을 피우려고 혼자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었나 보다.

“근데 아빠가 뜬금없이 심청전 읽었냐고 묻더라.”

“어? 그래서 뭐했어요?”

“읽었다고 했지. 응, 그러고 말더러만 갑자기 그런 건 왜 묻는지.”

나도 모르게 배시시 웃음이 나왔다.

“하긴 뭘 물은들 어때. 이만한 게 어디라고. 차차 나아지겠지. 네
아빠 말처럼 서둘지 말고 우리 천천히 기다리자. 다시 꽃 피는 시
간을. 할 수 있지?”